

meritz Transport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운송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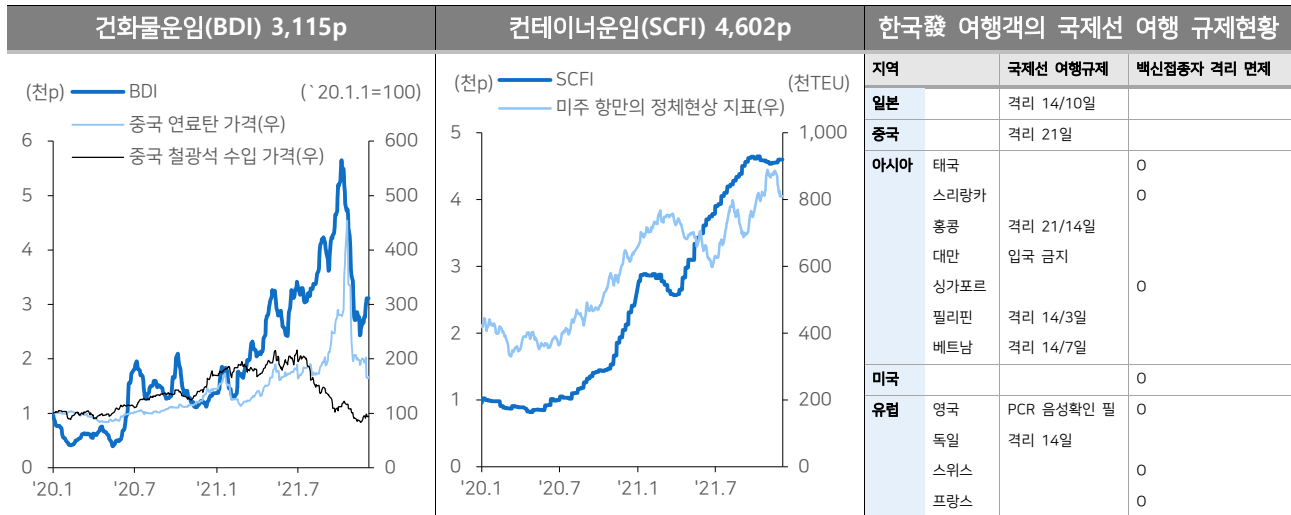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2021. 12. 6 (월)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자료: Clarksons, 외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VLCC spot rates keep languishing while suezmaxes show some improvement

유조선 시황이 여전한 부진에 빠져있으며 특히 VLCC와 같은 대형 유조선 업황이 부진하다고 보도됨. 수요의 증가속도는 더딘 반면, 선박량 측면에서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 성악되는 운임 수준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됨. 동아시아로 향하는 노선의 VLCC 평균 운임은 WS(World Scale) 41p 수준이며 서아프리카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보도됨. (TradeWinds)

Dry bulk market headed to 'overcorrection', Platts analysts say

일일 운임 기준으로 5,650p까지 치솟았던 BDI레벨 전망에 대한 S&P Platts Global의 보수적인 의견이 보도됨. BDI레벨이 2022년 1분기에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건화물(dry bulk) 수입 수요가 팬데믹 상황하에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고,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Reefer container freight rates to accelerate in 2022

2022년 리퍼(냉동/냉장)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도됨. 전체 컨테이너시장 내 정체현상은 지속되는 가운데 리퍼 컨테이너의 물동량이 2020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해운 컨설팅업체 Drewry는 당초 컨테이너선 시장 내 혼선은 2022년 상반기 이후 해소 된다고 전망했으나, 의견을 변경하여 2022년 내 지속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됨. (Hellenic Shipping News)

인천공항 올 항공화물 300만t 최대... 김경욱 사장 "2023년부터 흑자 기대"

인천국제공항의 화물운송 실적은 13% 이상 증가하며 사상 첫 연간 300만t을 돌파했다고 보도됨.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화물기 부정기 운항편 급증, 환적화물 증대 노력에 힘입어 화물처리량은 약 320만t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힘. 2021년 여객실적은 전년대비 74.6% 감소한 30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됨. (에어진)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www.imeritz.com